



報 道 資 料



2002년 4월 30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국제 엠바고에 묶여있습니다.

Embargo : Tuesday 30 April 2002, 00h, 01

2002년도 IMD 평가 세계경쟁력 연감 발표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한국 국가경쟁력 일본 제쳐, 세계 27위, 3단계 앞서

한국경제 국가경쟁력 자신감 회복, 20개 항목 중 14개 작년보다 개선
인천·제주 경제특구 등 핀란드(2위), 룩셈블그(3위)처럼 도약할 수 있을 것

정진호 박사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IMD 세계경쟁력연구 한국 파트너

02-2203-3500

011-475-2014

jeong@khdi.or.kr

www.khdi.or.kr/jeong

Ste'phane Garelli 교수

IMD 경영대학원 교수

IMD 세계경쟁력연구 책임자

+41-25-618-0251

Fax +41-21-618-0204

wcyinfo@imd.ch

www.imd.ch/wcy

기 자 설 명 회

- ◆ 시간: 2002년 4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00분
- ◆ 장소: 송파구 잠실동 인간개발연구원 풀마이어 홀
(잠실운동장에서 백제고분로 쪽 2km 송파등기소 맞은편 극동빌딩 A동 3층)
- ◆ 발표자: 정진호 박사 (2203-3500, 011-475-2014)
- ◆ 발표내용 1. 한국경제 국가경쟁력 전반적 상승, 자신감 회복
2. 한국 국가경쟁력 드디어 일본보다 3단계 앞서, 민족 숙원 성취
3. 한국과학기술경쟁력 세계 10위, 민관협력 정보통신 기술투자 성과
4. 환란극복과정에서 경제개방과 구조개혁이 경쟁력 향상에 기여
5. 경제특구 만들어 지역발전 규제 풀면 지방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앞설 것
6. 가치관 혼돈, 이공계 진학기피, 기초과학 한계 도달은 지속성장의 벽
7. 2006년까지 한국경제의 국가경쟁력을 10위로 올리는 특별대책 필요
- ◆ 자료제공 1. 보도자료(한국측)
2.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2(스위스측)
3. 기초 통계 및 세부보도자료



報 道 資 料



2002년 4월 30일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국제 엠바고를 지켜주십시오.

Embargo : Tuesday 30 April 2002, 00h, 01

2002년도 IMD 평가 세계경쟁력 연감 발표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한국 국가경쟁력 일본 제쳐, 세계 27위, 3단계 앞서

한국경제 국가경쟁력 자신감 회복, 20개 항목 중 14개 작년보다 개선
인천·제주 경제특구 등 핀란드(2위), 룩셈블그(3위)처럼 도약할 수 있을 것

정진호 박사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IMD 세계경쟁력연구 한국 파트너

02-2203-3500

011-475-2014

jeong@khdi.or.kr

www.khdi.or.kr/jeong

Ste'phane Garelli 교수

IMD 경영대학원 교수

IMD 세계경쟁력연구 책임자

+41-25-618-0251

Fax +41-21-618-0204

wcyinfo@imd.ch

www.imd.ch/wcy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2002년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30일 발표하였다. 1989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는 「IMD 평가 세계경쟁력 연감」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가경쟁력 연구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 850쪽에 달하는 2002년 보고서는 314개의 자세한 통계수치와 섬세한 최고경영자 서베이를 활용하여 OECD회원국 30개국과 주요 신흥개도국 및 체제 전환국 19개국 총 49개 나라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여 순위를 매긴다.

이 프로젝트는 IMD의 스테판 가렐리(Ste'phane Garelli, 스위스 로잔느대학) 교수가 세계 36개 파트너 연구기관과 함께 각 나라의 경쟁력 현황을 분석해 보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4년부터 정진호(鄭鎭鎬, 52세)박사가 IMD 세계경쟁력연구 한국파트너를 맡고 있으며, 인간개발연구원(이사장 崔昌洛)은 2001년도부터 한국파트너기관으로 한국측 분석과 보도를 책임지고 있다.

1. 한국경제 국가경쟁력 전반적 상승, 자신감 회복

「2002년도 IMD 평가 세계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00년도와 2001년도의 28위에 비해 1등급만 오른 세계 27위이다. 그러나 평가 대상 4개 부문 중 작년에 비해 경제운영성과(19위→24위)를 제외한, 정부행정효율(31위→25위), 기업경영효율(31위→27위), 발전인프라구축(34위→28위)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었다. 특히 물가 및 생계비(30위→25위), 재정구조(9위→3위), 자금시장효율(35위→29위), 과학인프라(21위→10위) 등 20개 세부 항목 중 14개 항목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어 한국경제가 드디어 본격적인 경쟁력 향상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한국경제는 1996년까지 27위 정도의 경쟁력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1999년 41위까지 국

가경쟁력이 추락한 바 있다. 이 기간 중 경제의 개방성을 높여 2002년도에는 세계화에 대한 적응력이 향상(24위)되었으며 기업인들은 글로벌리제이션에 대한 긍정적 태도(세계 16위)를 갖게 되었다고 IMD는 분석했다. 특히 내국인 특허획득건수는 연 평균 4만 3천건으로 일본의 13만 4천건(세계 1위), 미국의 8만 4천건(세계 2위)에 이어 세계 3위 기록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용자 수도 인구 천명당 510명으로 세계 8위 수준이다. 최근의 국가신용등급회복에서 보듯이 우리의 국가경쟁력 수준은 IMF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그 이상의 도전과 도약은 현단계에서는 가지적이지 못하다고 IMD는 평가했다.

2. 한국 국가경쟁력 드디어 일본보다 3등급 앞서, 민족 숙원 성취

한국은 2001년도에 세계가 정보통신분야 투자과잉과 9.11 테러 사태 이후 미국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제위축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출제품을 다양화하고 수출지역을 다변화하여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학 등에서 수출감소세를 둔화시켰다. 또한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내수시장확대를 유지하여 국내경제활력의 둔화추세를 완화할 수 있었다(경제운영성과- 1999년 38위, 2000년 13위, 2001년 19위, 2002년 24위). 이에 비해 일본은 10년 이상 복합불황과 경기침체를 겪고있어 1993년 세계 2위의 국가경쟁력이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1997년에는 17위로 급락했고, 2002년에는 세계 30위로까지 떨어짐으로써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일본을 앞지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일본보다 3등급 앞서게 된 것은 두 나라의 정책의지와 현명한 전략선택에 따라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이 염원했던 민족숙원의 성취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분석의 근거는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과 회계투명성확보 노력 그리고 금융구조개혁과 향후 민영화 향방에 따른 유연성과 개방성유지에 달려있다고 IMD는 평가했다.

일본은 120년에 가까운 경제개발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다. 그러나 한국은 1970년 초 시작된 산업개발로 최근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발전인프라구축 면에서는 일본은 세계 16위, 한국은 세계 28위로 현격한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수출강국으로 외환보유고 세계 1위, 내국인 특허권획득(13만 4천건), 국민 1인당 총 연구개발비지출(1,171달러), 경상수지 흑자규모(GDP비중, 95.8%) 모두 세계 1위이다. 그러나 핀란드는 이동통신 단말기제조기업 노키아의 성공으로 핀란드의 국가경쟁력이 1993년 25위에서 2002년 세계 2위로 10년만에 무려 22등급을 단축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선택은 한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IMD 분석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3. 한국과학기술경쟁력 세계 10위, 민관협력 정보통신 기술투자 성과

과학인프라분야 세계경쟁력 순위는 미국(1위), 일본(2위), 스위스(3위), 독일(4위), 스웨덴(5위) 순이다. 한국은 10위로 2001년도의 21위에서 11등급을 뛰어 올랐다. 이는 새롭게 추가된 항목인 특허권획득 생산성(세계 1위)과 내국인 특허획득건수(세계 3위), 해외특허획득건수(세계 10위), 민간기업체 총 연구개발인력(세계 7위), 총 연구개발비 지출(세계 8위), 기초과학연구 중요성인식(세계 12위) 등 소수의 지표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약진은 일본이 앞서고 있는 과학인프라분야와 기술인프라분야의 대부분에서 함께 탁월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관협력 정보통신기술투자의 성과에 힘입은 바 크다. 그 예로 이동전화비용은 피크시간 3분에 35센트(세계 5위), 통신설비의 편의성과 유용성(세계 13위), 컴퓨터활용(세계 8위), 인터넷 사용자수(세계 8위), 저렴한 인터넷사용비용(세계 3위), 적절한 인터넷접속(세계 9위) 등 지난 16년간의 꾸준한 연구개발과 투자의 결과이다. 한국의 기술인프라분야 세계경쟁력 순위는 세계 19위로 작년보다 6등급 올라섰다.

4. 환란극복과정에서 경제개방과 구조개혁이 경쟁력 향상에 기여

경제운영성과 면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2000년 13위, 2001년 19위, 2002년 24위로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국내경제활력이 작년의 세계 8위에서 18위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주식투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경영 환경개선과 외국기업진출 매력도는 향상되고 있지만, IMF 경제위기 이전의 외국진출공격성(2000년 내국인 해외직접투자유출액 52.6억 달러, 23위)과 해외수출 모험정신(2001년 상품수출 실질성장률 -4.07%, 35위)은 약화되어 가고 있다.

5. 경제특구 만들어 지역발전 규제 풀면 지방경쟁력이 국가경쟁력 앞설 것

한국경제가 드디어 국가경쟁력 면에서 30위로 추락한 일본경제를 추월하고 젊은 경제로 활력을 회복할 기회를 얻고있다. 미국경제가 IMD 평가 국가경쟁력 순위 세계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식과 정보의 코스트 비교우위에 있다. 대학주위의 사이언스 파크는 벤처창업(창업용이성 세계 1위)과 벤처캐피탈투자(벤처캐피탈 사업활용 용이성 세계 1위)의 요람이 되고 있으며, 도시상권의 비즈니스 파크는 뉴비즈니스 창업(혁신기업가 정신 세계 1위)과 고용창출의 지역개발 엔진(연구개발 시설의 이전용이성 세계 2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개방성과 유연성은 미국경제 특유의 성장활력이며, 이는 50개 주정부가 경제적 선택과 활력의 주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천공항 중심 경제특구 형성이나 제주도 경제특구는 규제를 풀고 지역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이들의 지방경쟁력은 세계의 작지만 강한 나라들처럼 새로운 경쟁력강화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핀란드(세계 2위)는 인구 520만명이지만 국민 1인당 GDP는 2만 3천달러(세계 13위), 경상수지흑자 80억달러(세계 14위)로 탈바꿈했으며, 이는 인천·김포·일산 경제특구의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도도 인구 50만명으로 유럽연합 제2의 통합은행을 설립해 국민 1인당 GDP 4만 3천달러(세계 1위)를 달성한 룩셈블그(세계 3위)의 예를 배워 새로운 비전을 실천할 수 있다”고 정진호박사는 분석하였다..

6. 가치관 혼돈, 이공계 진학기피, 기초과학 한계 도달은 지속성장의 벽

한국에서 성차별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분석되었다. 한국이 인도(42위), 러시아(43위), 일본(44위), 헝가리(46위)에 버금가는 세계 45위로 평가되었다. 여성의 의회진출은 5.9%로 싱가포르, 러시아, 브라질 수준이며 스웨덴 42.7%(1위), 덴마크 37.4%(2위), 핀란드 36.5%(3위), 노르웨이 36.4%(4위)의 북구제국에 비하면 너무 뒤져있다. 여성의 전체적인 임금수준은 남성의 45%(27위)로 덴마크 70%(1위), 스웨덴 68%(2위), 호주 67%(3위)에 비하면 너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가치관의 혼돈은 인간이 가진 잠재적 능력의 발현이 사회적 제약에 의해 차단됨을 의미한다. 이는 대학교육에 있어서 이공계대학진학 기피와 무관하지 않다. 여성의 자연과학분야 진출과 기술분야 도전이 제약받게 되면 자연적 성차별은 고착화될 전망이다. 한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과학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호기심자극이 의무교육단계에서부터 육성되어야 한다고 IMD는 분석하였다.

7. 2006년까지 한국경제의 국가경쟁력을 10위로 올리는 특별대책 필요

2006년까지 한국의 IMD 평가 국가경쟁력을 10위권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IMF 외환위기 극복 경험으로 한반도를 동북아 비즈니스센터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새로운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IMD 한국파트너 정진호박사는 평가했다.

“한국인의 창조적 기질과 한국기업의 도전정신을 활용하면 됩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영투명성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덕적 윤리경영을 회사의 존재목적과 일치시키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윤리적 실천을 약속한다면 더 이상의 게이트는 없을 것입니다, 세계를 향해 한국인의 긍지와 한국기업의 서비스 탁월성을 알리는 윈도우만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의 감성적 체질강화는 한국기업의 강점입니다. 무슨 일이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한국인의 특질입니다.”

“국가경쟁력 세계 10위권은 홍콩(9위), 아일랜드(10위), 스웨덴(11위)의 수준으로 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콩에서처럼 어떤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누구나 대학을 갈 수 있고 이는 국가의 책무가 됩니다. 아일랜드에서처럼 어떤 중소벤처기업도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해외에서 고학력컨설턴트로 봉급생활을 하던 사람이 아일랜드에 돌아와서 기업인으로 성장한 예는 흔한 얘기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어떤 소외된 지역도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1995년 지방자치를 실시한 이후 한국에도 잘사는 지역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짓는 시골이던 대구 달성군이 소득수준 면에서 대구광역시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 합니다. 정부기관에 의한 선택의자유가 보장되는 인터넷 시대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